

# 생생 한옥체험 참가자들 큰 호응

전북대 한옥 교육, 문화재청 우수사업 선정... '정읍 김명관 고택 향기를 찾아서' 2회 수상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가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함께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읍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생생문화재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이번 수상으로 2번이나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정읍 김명관 고택을 대상으로 건축이야기, 한옥체험, 정읍의 명품건축 답사, 사진찍기, 김명관 고택 토론을 통한 생각 나누기, 문화재 보호활동 등을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한다. 특히 김명관 고택의 사랑채 한옥모형을 직접 제작해 이를 통한 한옥의 구조, 용어, 건축적 특징을 익힐 수 있는 실습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정읍에 소재하고 있는 무성서원이나 피향정 등 건축 문화재 답사를 통해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특히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도 병행해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과 스스로 문화재를 지키는 자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면서 올해도 3월에 일찌감치 마감



정읍 김명관 고택 체험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되며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가 몰려 예정된 8회 프로그램에는 이미 마감된 상태이다. 신청자가 쇄도하여 올해 후반기에 실시할 프로그램을 3회 앞당겨 실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전북대 남해경 교수는 "우리 고택의 소중한

건축문화재인 김명관고택을 대상으로 학교와관이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읍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반드시 명예의 전당에 전시되는 영광을 누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기자



장애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작은음악회'가 19일 점심시간 동안 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 "장애학생의 반짝이는 꿈과 재능을 응원합니다"

도교육청, '작은 음악회' 마련

도교육청이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다. 장애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응원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작은음악회'가 19일 점심시간 동안 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첫 무대로는 전북해화학교의 '볼링헤이즈밴드'가 '개구쟁이', '밤이 깊었네' 등 신나는 연주와 노래를, '혜화무용단'의 퓨전 탈춤은

전통장단과 현대적인 음악을 조합, 힘 있고 절도 있는 동작을 통해 관객들의 흥을 돋웠다. 익산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고은빛 중창단'은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중창단으로 이날 '비타민 친구'의 1곡을 울동과 함께 선보였다.

소리꾼 장성빈은 아쟁연주 '이리랑'과 판소리 '흥보가' 중 첫채박 타는 대목을 들려줬다.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안고 있는 장성빈군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교사의 권유로 판소리를 시작한 이후 13년째 판소리 명창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산특수교육지원센터 사진동아리 학생들이 찍은 사진 12점도 전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의 반짝이는 꿈과 재능을 응원하기 위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장애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음악회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 대상에 'NAZZAM'

전년보다 2배 몰려 158:1 경쟁률... 총 8개 작품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19일 '2018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Korea Character Contest)'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158:1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공모전은 총 8개 작품에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지난 11월부터 약 2주 간 접수를 받은 '2018 대한민국 캐릭터 공모대전'에는 총 1262개 작품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견주었을 때 2배가 넘는 수의 작품으로, 한층 더 뜨거워진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올해 대상 작품은 ▲풍선을 형상화한 동물 친구들의 소소한 일상을 표현한 'NAZZAM'으로, 캐릭터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통해 풍선, 끈 공간이 주는 행복을 나타냈다.

최우수상은 ▲성(性) 이야기를 어른들의 캐릭터로 재치있게 담아낸 <츄츄와 영찌>와 ▲'만년대리'들을 위한 직장 생존기 <댕대리>가 이름을 올렸다.

특별상은 ▲평범한 캐릭터들이 서로를 만나 의지하고 아픔을 극복하는 <코즈미코(COSMICO)> ▲서로 다른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한 몸에 공존하는 <안과 스킨(Yarn and Scene)> ▲고장 난 장난감을 통해 겉모습에 상관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키니스 마을의 장난감병원과 고장난 장난감 친구들>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꿈나라 쥐 <meet 미몽(mignon)> ▲인천시 홍보와 인식개선을 목표로 한 지자



체 캐릭터 <인천아빠다> 등 5개 작품이 차지했다.

선정된 8개 작품에는 ▲대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1팀) 1000만원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2팀) 각 500만원 ▲특별상(후원사상·5팀) 각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국내외 캐릭터산업 체험 연수와 한콘진이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카카오(kakao) ▲SPC그룹 ▲다남엔터테인먼트 ▲모닝글로리 등 국내 굴지의 기업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및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경미 한콘진 대중문화본부장은 "대단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공모전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높은 완성도와 참신한 시도들이 눈에 띄었다"며 "원석 같은 캐릭터 창작자들을 발굴하고 다듬어 빛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 한콘진-신보 '맞손'... 중소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확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이하 신보)은 19일 오전 서울 CKI기업지원센터에서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 콘텐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나아가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콘텐츠산업 분야 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중소 콘텐츠기업이 더 넓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을 계기로 신규 도입되는 보증 상품은 ▲'신한류 보증' ▲'콘텐츠P 보증'으로, 이를 통해 중소 콘텐츠기업의 자금 운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콘텐츠산업과 제조·서비스업간 융

합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류 확산과 콘텐츠 수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신한류 보증'은 해외 시장조사, 현지화 제작, 현지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한다. '콘텐츠P 보증'은 콘텐츠P 이용 확대를 통해 콘텐츠업계와 이종 산업계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상품이며, 대상은 콘텐츠P를 활용한 상품기획, 디자인·금형·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투입되는 자금이다.

한콘진과 신보는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올해 중소 콘텐츠기업 210개사에 총 448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 콘텐츠기업의 부족한 제작자금을 조달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는 한콘진의 콘텐츠가 치평가와 신보의 기업신용보증제도를 결합해 콘텐츠의 기획·제작·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왔다. /뉴시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 세계로 도약하는 새만금 김제

시민역량을 결집하여 김제 미래 100년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중심도시 김제,**  
동북아 경제 거점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